◆ ▣ ◆ ▣ ◆ ▣ ◆ ▣ 이웃의 등대·민족의 구원선·세상의 나침반 ◆ ▣ ◆ ▣ ◆ ▣ ◆ ▣ ◆

“ ‘하나님의 도성' 건설 위하여 ”

■ **이종윤 원로목사**

- 두 도성의 이야기 -

한때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천년에 걸쳐 굳게 지켜졌던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아직도 역사가들에게 여러 가설을 제시케 하고 있다.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옛 신(神)들에 대한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 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AD412년 경 북아프리카의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용기 있는 변론을 펼쳐 나갔다. 그의 22권의 긴 책에서 첫 열 권에서는 옛 신(神)들이 로마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로마는 많은 군대의 침략과 자연재해를 받았으며 문화를 방어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교도 신(神)들에 대한 예배는 로마를 악의 구렁에로 몰아넣었다 한다. 그리고 로마는 자체의 부패로 멸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다음 열두 권의 책에서는 그의 역사철학을 전개시키면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하와의 타락 이후 아벨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뉘어 두 도시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자기 사랑으로 채워진 도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아를 경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진 천상의 도시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와 고대의 바벨론, 로마와 같은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지상의 사회로 구분하고 마침내 지상에로의 도시는 사라져 버리게 된다 한다. 어거스틴은 두 사회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마지막 운명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성은 종교 개혁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두 개의 왕국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요즘 같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 구별이 애매모호한 때에 어거스틴의 두 도시 개념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북한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도시마다 산간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의 후예 노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연결되고, 뱀(마귀)의 타락한 후손 가인 라멕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칭되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대립으로 역사는 흘러간다. 세속의 도시와는 대조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이 세상 왕국이 눈에 보이는 반면에 거룩한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해도 환영이 아닌 실제로, 그것은 세상 도시는 사라져 버려도 그 나라는 확실히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다. 인간 모두는 세속의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느부갓네살이 7년에 걸친 그의 형벌이 끝나고 그의 총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후 이전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상의 도시의 시민으로서, 무너질 도성을 세우고 있는 북녘땅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쁘게 부르는 하나님을 증거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여 세계복음화의 교두보가 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495호] 2016년 3월 4일 발췌-

◆ ▣ ◆ ▣ ◆ ▣ ◆ ▣ ◆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 ▣ ◆ ▣ ◆ ▣ ◆ ▣ ◆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서울지역 특히 서울교회 인근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부득이 정부와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선 이번 주일 전체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대신 주일 1부 예배시간에 목사 장로 직원 등 소수의 인원만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벽기도회도 별도 공지 시까지 부목사님의 인터넷 영상말씀으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는 보내드릴 순서지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되 설교순서에는 서울교회 유튜브 설교영상으로 대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생방송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9시, 아래에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은 사무국(02-558-1106)으로 연락하여 별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비록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안내하여 드린대로 영유아유치부, 유초등부는 부서 해당 교역자들이 SNS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5분 메시지로 대신하며,
사랑부는 가정에서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레쉬),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하창범현미순(일본), 김나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또바로이, 필리몬, 프로또또, 수레시, 수비쓰, 알로롱, 비사뉴뽀또, 보디소또, 리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레쉬),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부재연(마다가스카르)

제30권 제10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3월 8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

■ **렘 29:11-14**

본문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생활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력 부재와 군사력 부족과 같은 총체적 난맥상태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여호와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된 그들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해야 함을 출애굽 이후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번번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그는 분명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규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셨지만(신 10:13)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갖은 고통과 아픔들은 모든 질병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포함하여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시 107:10-11).

1. 징계의 목적

하나님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불신 세력들에게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징벌하십니다. 반면에 그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는 전쟁이니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전쟁을 맞고 가난에 시달리고 전염병에 힘겨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대 재앙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족속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전쟁이나 역병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신약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 12:6, 8-13에 의하면 성도들의 징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개개인이 받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이든, 또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12-13절).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2. 소망이 이기게 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14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된다.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맺는 말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손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거나 경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손보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더욱 주께 붙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단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보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하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단에게 빼앗기게 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재앙 가운데서 미리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오광환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인터넷 영상	
Ⅲ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50:1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25(사순절 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27(2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406(46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재홍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12:1 ····· 인 도 자
찬 송 ····· 383(433)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롬 13:8-10 ····· 인 도 자
설 교 … "하나님 뜻에 부합한 성도" … 인터넷 영상
찬 송 ····· 338(364) ····· 다 함 께
주기도 ·····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Ⅰ부								
수요Ⅱ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2,173명	622명	2,795명	1,536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3/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1일	헌 금	18,207,000	
	교회학교운영비		131,800
	경 조 비		33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129,300
	통 신 비		240,950
	수도광열비		396,520
	차량유지비		492,000
	잡비		996,740
	환경유지비		141,600
	식당운영비		522,680
	합 계	18,207,000	3,631,59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 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